

대구주보

성모 승천 대축일
2012.8.15.(나해) | 제1795호



영원한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살기

박석재 가롤로 신부 | 교구 사무처장



오늘이 광복절이기도 하다 보니 해방이란 단어가 먼저 떠오른다. 우리 민족이 일제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 ‘가난’으로부터도 해방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삶은 여전히 힘겹다. 그러다보니 세상은 아직도 영웅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대한다. 우리의 불안을, 우리의 욕망을 해결해줄 초능력자 메시아를. 그러나 그런 기대는 실망을 더 크게 안겨주지 않던가?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유일한 메시아라고 믿는다. 내세만이 아니라 현세에서도 그분만이 메시아시다.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루카 4,18-19).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가져다주시는 그 해방과 자유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한다.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가 고통과 불행, 고뇌를 겪을 때마다 해결해 주셔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던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따라도 뜻밖의 불행을 만나고, 암담한 처지에 놓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그분의 해방과 자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가져다주는 해방과 자유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열린 영원한 생명의 나라 자체가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이다. 지금 여기가 전부 아니니 여기에 전적으로 매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여기가 전부고 여기가 끝이라면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겠지만, 여기가 전부가 아닐뿐더러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니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덧없는 이 세상의 것들이

좀 있어도 그만, 좀 없어도 그만인 것이다.

아마도 우리 둘 다를 얻고 싶어 한다.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도 넉넉히 누리고 싶고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영원한 세계의 보화도 얻고 싶다. 그게 가능할까?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초점을 영원한 세계에 두고 살아야 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마태 6,24). 뿐만 아니라 만일 내가 남들보다 좀 더 가지고 있다면 나는 없는 이들과 나누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하느님께서 나를 내치실지 모른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루카 6,24-25). 왜냐하면 하느님께서서는 한쪽에서는 헐벗고 굶주리는데 한쪽에서는 누리기도 남는 그런 세상을 싫어하시고 그 책임을 더 가진 자들에게 물으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이다.

성모님께서서는 그런 하느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사셨다. 오늘 복음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성모님께서서는 이렇게 노래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홀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루카 1,51-53). 더 가지려고 하기에 앞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기를 더 바라야 할 것이다. 성모님께서서는 영원한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하느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분간하며 사셨고 세상적인 것에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셨다. 그 성모님을 하느님께서서는 높이 높이 올리셨다. **가롤로**

평화의 어머니, 우리 어머니

해방 후 우리나라에서는 좌우익이 대립하는 가운데 혼란이 극심했습니다. 남북이 점점 갈라지고, 북한에서는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습니다. 최덕홍 주교님은 성모당에서 남북통일과 북한의 종교 자유를 기원하는 성체대회를 열었습니다. 1만여 명의 신자들이 1949년 6월 19일 성체행렬을 하고 성체강복을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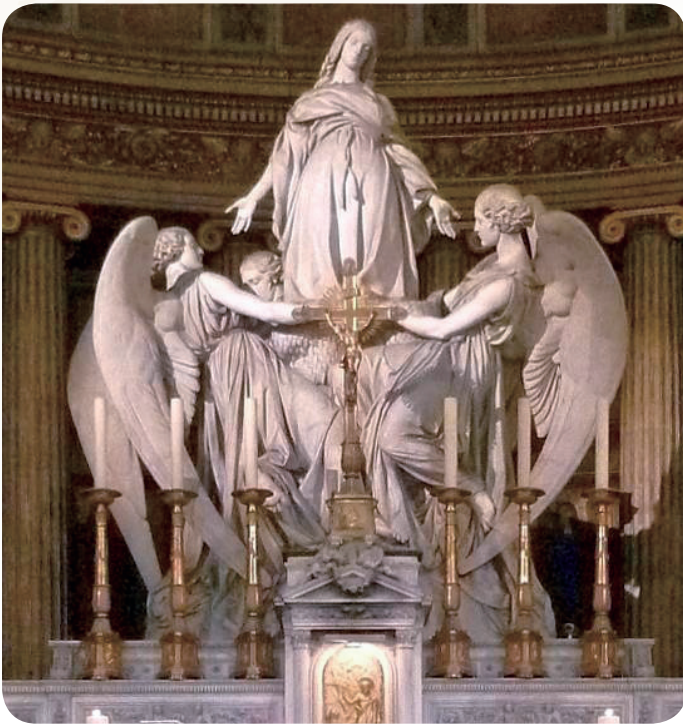
이듬해 6.25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수한 장비를 갖춘 북한군은 서울, 청주, 대전을 함락하고 파죽지세로 남하했습니다. 8월 13일에는 대구의 코앞인 칠곡 다부동에서 극렬한 전투가 있었고, 영천 방어선이 9월 7일 무너졌습니다. 대구가 공산군의 수중에 넘어갈 위기를 맞았던 것입니다. 신자들은 한 명 두 명 성모당으로 모여 들었고, 신자가 아닌 이들과 피난민들도 성모당에 모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주교님이 모은 것도, 신부님이 예절을 이끈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모인 이들은 정해진 시간도, 기도 순서도, 기도 양식도 없이 오직 평화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성모님께 매달려 대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공산군은 대구에 들어오지 못하고 저지되었고, 곧 연합군의 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모당을 찾아 기도하는 이들은 이후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후 「경향잡지」는 이 일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6.25 동란 때 대구시 루르드 성모상 앞에는, 뜨거운 염천 대구의 흑서도 모르는 듯 자발적으로 모여들어 열심 기도하는 남녀교우들의 발길이 끊어진 날이 없었다. 사람들은 저때 어떤 장군의 전술이 좋았느니, 어떤 부대의 용전분투한 결과이라고들 말들 하지만, 그때 대구를 살리고 아마 남한까지 구출한 근본 원인은 성모상 앞에 있었던 것으로 믿고 싶다. 지금도 어떤 날이든지 오후 3시 쯤이면 수십 명의 남녀교우들이 열심으로 묵주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보게 된다. 국난 발생 이래 자발적으로 시작한 것이며, 또 국난 극복을 위하는 것이다. 우리 한국 교우들이 모두 이만한 열성으로 기도드려 나간다면, 우리나라를 구할 것은 틀림없다.” 대구주교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습니다.”

교구 문화홍보실



우리가 장차 받을 은혜에 대한 보증

2004년에 루르드를 방문하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하께서는 성모님의 승천이 우리가 장차 입을 은혜를 미리 보여 주는 것이라 하시며 요한복음 14장 3절을 인용하셨습니다. :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이것은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구속 공로를 미리 받으시어 원죄 없이 잉태되신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성모님께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것은 장차 예수님의 피로 씻기어 원죄와 본죄를 용서받게 될 모든 신자들, 즉 우리들에게 표본이자 모범이 되신 것입니다. 성모님의 승천도 또한 장차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활하여 하늘나라에

가게 될 우리들에게, 그 희망을 보증해 주는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의 증표

성모님의 승천은 또한 하느님께서 우리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우리가 묵주의 기도 중에 묵상하는 것처럼, 성모님께서 하늘에 오르시어 천상 모후의 관을 받으시고 천사들의 공경을 받으십니다. 이런 영예를 성모님의 자식들인 우리도 나누어받게 될 것이므로, 성모님의 승천은

성모 승천 대축일은 예전에 성모 몽소승천 침례라고 불렀습니다. 승천은 하늘에 오른다는 뜻이지만, ‘몽소’는 무슨 뜻일까요? 몽소(蒙召)라는 한자 말은 입을 몽, 부를 소를 씁니다. 즉 부르심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불러올리신 것입니다. 이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 승천이라는 말 앞에 ‘몽소’를 붙였던 것입니다. 서양 말에서는 예수님의 승천(Ascension)과 성모님의 승천(Assumption)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예 다릅니다.

하느님 앞에 사람이 입게 될 큰 은혜를 미리 보여 주는 것이 됩니다.

가장 큰 영광의 자리는 십자가 아래

성모님께서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누리시는 영광에 참여하시는 것은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업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느님의 부르심

에 응답하셨고, 목숨을 걸고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는 데에 동의하셨으며, 예수님의 첫 번째이자 가장 신실한 제자가 되셨고, 십자가 아래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수난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느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였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성모님의 뒤를 따라 하늘에 오르기 위해 우리에게 남은 한 가지 일은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I 금주의 성화

성모님의 대관 (디에고 벨라스케스, 캔버스에 유화, 1635년. 스페인프라도박물관 소장)

벨라스케스의 명작인 이 그림은 성모님께서 하늘에 오르시어 삼위일체 하느님으로부터 천상 모후의 관을 받으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삼각형으로 안정된 그림의 구도와는 대조적으로 색채와 붓놀림은 매우 강렬하며 대담하다. 구세주 예수님께서는 수난을 상징하는 붉은 색 겹옷을 입고 계시며, 성모님의 좌우로 앉아 계시는 성부와 성자 사이에 비둘기 모습의 성령께서 떠 계신다. 성모님께서는 매우 젊은 모습이지만 여왕다운 위엄이 있으시다.

† 오늘의 전례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습니다. (루카 1,39-56 참조)**

성모님의 승천은 우리 사람이 하느님께 얼마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태중에 모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성체를 모시고 살아갑니다. 십자가 아래까지 따르신 성모님을 본받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살다가, 우리도 하늘에 올라 “이들이 내 어머니이고 형제들이다.”(마르 3,34)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제1독서 : 묵시 11,19ㄱ; 12,1-6ㄱㄷ.10ㄱㄷ 제2독서 : 1코린 15,20-27ㄱ 복음 : 루카 1,39-56



이상영 (그레고리오) 신부님의 성가집 발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이상영 신부의 성가곡집

이상영 신부님 (무태본당 주임)의

미사곡 2편과 22편의 성가가 실린 성가곡집이

2012년 성모 승천 대축일 (8월 15일)을 기해 발매됩니다.

구입 문의 : 분도출판사, 02-2266-3605

<http://www.bundobook.co.kr>

성모 승천 대축일 전야미사

▲ 입당송

마리아님, 오늘 천사들의 무리 위에 높이 오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개선하셨으니, 저희 모두 어머니께 영광을 드리나이다.

- ▲ 제1독서 [1역대 15,3-4.15-16; 16,1-2]
〈온 이스라엘은 다윗이 미리 쳐 둔 천막 안에 하느님의 궤를 옮겨 놓았다.〉

▲ 화답송

- ◎ 일어나소서, 주님, 권능의 궤와 함께 당신 안식처로 드소서.
○ 보라, 우리는 에프라타에서 소식을 듣고, 야아르 들에서 그 궤를 찾았노라. 우리 그분 거처로 들어가, 그분 발판 앞에 엎드리세. ◎
○ 당신의 사제들이 의로움의 옷을 입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환호하게 하소서. 당신 종 다윗을 보시어, 당신 메시아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소서. ◎
○ 주님은 시온을 택하시고, 당신 처소로 삼으셨네. “이곳은 길이 쉴 나의 안식처, 내가 원하였으니 나 여기 머물리라.” ◎

- ▲ 제2독서 [1코린 15,54ㄴ-57]
〈하느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느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은 행복하여라.
◎ 알렐루야.

- ▲ 복음 [루카 11,27-28]
〈선생님을 배었던 모태는 행복합니다.〉

- ▲ 영성체송 [루카 11,27 참조]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을 잉태하신 동정 마리아의 모태는 복되시나이다.

성모 승천 대축일

▲ 입당송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열두 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났네.

- ▲ 제1독서 [묵시 11,19ㄱ; 12,1-6ㄷ.10ㄱㄴㄷ]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둔 여인.〉

▲ 화답송

- ◎ 오피르 황금으로 단장한 왕비, 당신 오른쪽에 서 있나이다.
○ 당신 사랑을 받는 여인들 가운데, 제왕의 딸들이 있고, 오피르 황금으로 단장한 왕비, 당신 오른쪽에 서 있나이다. ◎
○ 들어라, 딸아, 보고 네 귀를 기울여라. 네 백성, 네 아버지 집안을 잊어버려라. ◎
○ 임금님이 너의 미모에 사로잡히시리라. 임금님은 너의 주인이시니, 그분 앞에 엎드려라. ◎
○ 기쁨과 즐거움에 이끌려, 임금님 궁전으로 들어가는구나. ◎

- ▲ 제2독서 [1코린 15,20-27ㄱ]
〈만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다음은 그리스도께 속한 이들입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성모 마리아 하늘로 오르시니, 천사들의 무리가 기뻐하네.
◎ 알렐루야.

- ▲ 복음 [루카 1,39-56]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습니다.〉

- ▲ 영성체송 [루카 1,49.48 참조]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성소

예수성심시녀회 성소 피정

기간: 8.25(토)~26(일)
9.15(토)~16(일)
주제: 성소식별 체험기도
대상: 건강한 미혼 남녀
회비: 1인 3만 원
문의: (010)2649-2045

피정

성 빈센트 젊은이 빈마음 피정

기간: 8.24(금)~26(일), 흥천기도의집
대상: 미혼여성 (만 30세 이하)
준비물: 성경, 묵주, 회비: 3만 원
주최: 성빈센트드뽐자비의수녀회
문의: (010)8833-8107(선착순 접수)

베네딕도영성관 신약성경 통독피정

기간: 8.29(수) 9:45 ~9.1(토) 17:00
동반: 김 수조 아가다 수녀
회비: 14만 원
문의: 313-3425

제주 성이시돌 피정

(미사, 말씀, 성지순례, 자연피정)
기간: 9.1~4(토~화), 9~12(일~수)
9.16~19(일~수) 10.6~9(토~화)
장소: 제주 성이시돌 목장 내
문의: 성이시돌 피정센터
(02)773-1455

모녀 조이플스테이 (10-12차)

기간: 9.1(토)~2(일)
9.22(토)~23(일)
10.6(토)~7(일)
주최: 예수성심시녀회 수녀원
문의: (010)9056-9005

젊은이 거룩한독서모임 Lectio Divina

하반기 첫모임: 9.11(화) 매주 화 19:00
장소: 대구파티마병원 내 찻리울
문의: 툇핑포교베네딕도수녀회
313-3431 / (010)8519-3431

가정성화를 위한 꽃동네 성령피정

기간: 9.15(토) 11:00~16(일) 16:00
장소: 음성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회비: 5만 원

문의: 꽃동네기도회, (010)5490-5345
myungkkot@hanmail.net

교육 | 모집

가톨릭상지대학교원격평생교육원

개강: 9.11(화)
학점은행제를 통한 사회복지, 보육
학위 및 자격증취득
문의: 1577-0361, www.cec.or.kr

여대생의 뜰 (기숙사)

대상: 여대생, 대학원생
(종교 무관, 숙식)
장소: 서울 성북구 정릉 국민대 건너편
문의: 원죄없으신마리아교육선교수녀회
(02)911-7580
http://www.rcm1892.net

까리따스 젊음의 집 개소

내용: 소그룹 피정 (20명 미만)
대상: 각 본당의 청년 및 신심단체
문의: 예수이까리따스수녀회
(010)2637-5237
http://cafe.daum.net/vocatio

미사안내

3대리구 교정사목후원회 미사	8월 18일(토) 오전 10시	월성성당
평화를위한 프란치스칸 영성미사	8월 18일(토) 오후 3시	프란치스카눔 (월배성당 뒤)

백두정형외과
어깨 관절경 수술전문
정형외과전문의/의학박사/원장
백두(아오스딩) 배성근(베드로)
소아청소년과/신생아세부전문의/의학박사/원장
배성영(미카엘라) www.baekduos.com
425-5919 평일 09:00~19:00
동인치안센터 건너편

두산약국
경대병원 처방제전문
경대병원 응급실건너편
T.422-4423
김계남 (크리스티나)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서 상 운(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522-5800 | 017-508-4328
010-2002-4328

강북행복을심는 치과
칠곡 화성3차 아파트와
화성 센트럴파크 사거리
파라비게트 3층
T.(053)323-2875, 2842
원장 고상철(베드로), 조진석

이시우 신경
http://적추외과 외과
척추내시경, 현미경레이저, 디스크수술
(척추수술 5,000세 기술)
652-0119 원장 이시우(요한)
내당역 3번 출구 앞 반고개에 위치

Offtop
doctor's cosmetic®
이스라엘 사해 미네랄의 24시간 수분 보호막
전문가가 처방한 건강한 보습제 **오프토피!!**
대표 손 민 정(루시아)
www.offtop.com
(053)526-0363~4
지하철 2호선 두류역 2번 출구 달성피부과 3층

서대구 미르치와
대표원장 박 상 준(안셀모)
미국 Loma Linda 대학교
치주과(잇몸치료/임플란트) 임상조교수 역임
달서구 감삼동 61-5 (2호선 감삼역 1번출구)
(053)628-1100

BICHE
Organic Restaurant
1F 근거리 유기농 농산물 직거래 매장 비채
2F 유기농 레스토랑 비채 **T. 744-2720**
3F 몸과 문화 건강문화센터
4F 온열치유센터 BODY AND CULTURE
T. (053)256-5493 www.bnc.or.kr
사) 몸과 문화 · 황금동 132-5 성김대건 성당 앞

행사 | 모임

노동자 미사

일시: 8.17(금) 19:00

장소: 가톨릭근로자회관 강당

문의: 교구 사목국, 250-3051

교육 | 모집

8월 가나강좌

일시: 8.19(일) 9:30~17:30

장소: 가톨릭대학병원 내 의대 마리아관

참가비: 2만원, 당일접수 (무료주차)

문의: 641-5678 / (010)8853-7458

2학기 신학강좌 수강생 모집

교회사, 윤리신학1, 성사론, 철학

기초신학, 전례와 삶, 동양사상

신약·구약성경과정, 신약성경입문

다음카페: 평신도신학교육원

문의: 660-5105~6

소공동체 세미나

일시: 9.4(화) 14:00~18:00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 대신학원

주최: 주교회의 복음화위원회

주관: 대구대교구 소공동체위원회

신청: 8.21(화)까지

문의: 교구 사목국, 250-3056

스페인어 초급반 모집

개강: 9월 초 (기초반 3개월 과정)

시간: 화 19:00~21:00

수 10:00~12:00 중 선택

대상: 성인

문의: 가톨릭근로자회관, 253-1313

제4기 로고스 스피치 학교

기간: 9.1(토)~10.13(토) 6주

(추석 연휴 쉽니다.)

장소: 교구청 별관, 회비: 10만 원

접수: 대구, 508-10-448845-1, 남희정

문의: 교구 성서사도직, 250-3082

순교자성월 영성 특강

일시: 9.1(토) 16:00

강사: 황창연 신부 (수원 교구)

문의: 관덕정, 254-0151

이곡성당 청년 성서 나누기반

일시: 9.5(수) 20:00

내용: 사도행전 (격주 수)

강의지도: 이재수 신부

문의: 김 엘리사벳, (010)9372-6959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창작사진: 9.3(월) 10:00

오카리나: 9.3(월) 12:30

서예: 9.5(수) 10:00

하모니카 성가: 9.5(수) 13:00

문의: 254-6115

대구파티마병원 14차

호스피스자원봉사자 신규교육

기간: 9.10(월)~11(화)

장소: 3층 제1강의실

선착순: 30명

교육비: 2만 원

대구은행, 508-10-349316-9, 장혜자

문의: 940-7059, 7415

(입금 후 전화)

카리타스 달서구 보금자리입소인 모집

시설구분: 실비 장애인 그룹홈(6그룹)

장소: 달서구 소재 아파트 및 주택

대상: 성인 지적 장애인 (30명)

이용료: 소득수준별 실비 부담

문의: 재활교사 최희승

(010)2369-3140

채용

성가요양원 야간근무 여직원 채용

자격: 요양보호사 자격증소지자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관련서류 등

제출: pious8021@nate.com

또는 방문

문의: 안심원, (054)976-8122

성 김대건성당 사무장 채용

자격: PC 가능한 30~40대 남성

제출서류: 이력서, 교적사본

자기소개서

마감: 8.31(금)까지

문의: 742-2504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
안심내과
〈30년 전통의 (구)이상계 내과〉
내과 전문의 6인 진료 **765-3771**
심장·순환기, 소화기·내시경 전문
공단검진, 5대암검진, 각종 종합검진
이상계(바오로), 김영섭(베드로), 김지영(대견안드레아)
들안길 네거리 ~ 왕곡성당 사이

장윤제
연합치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와 임상교수
원장 장윤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 편
T. (053)752-9797

ME 66차 부부의
달성피부과
의학박사 / 피부과전문의
손재경(다미아노) 김인주(레지나)
아토피센터·여드름·레이저·모발이식
7호광장 두류역 2,3번 출구
T. 566-4333

밝은눈안과
원장/전문의 임홍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초음파백내장/라섹수술
수술전문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15년 경력
"이현숙의결혼이야기"
국내 2006.04 매일신문 인터뷰 (피플 "세상속으로")
국제 2009-2010 경북 공무원 교육원 다문화강사
<http://www.leestory.kr>
054)458-3223 수산나 010-6571-3385
라스토리결혼정보
구미시외버스터미널 본관2층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멋진인생 에스텍
두피센터
SkinCare / Body / Scalp 탈모두피
지점) 남구, 대구, 동호, 두류, 만촌, 범어, 산격
서변, 성서, 시지, 칠곡3지구, 침산, 구미롯데
상담예약 **1588.8850**

진실한 신자와의 만남의 장
성가정 결혼
(053)474-0025, 476-9275
가톨릭 문화관 2층
남대구우체국 옆 교대역 입구
권중문(파비올라)

라식, 백내장수술 병원
김기산안과
Dr. Kim Ki San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의 김기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반월당 대구학원 9층
☎ (053)257-8875
www.kisaneye.co.kr